

# 戦争の 효력과 테러抑制의 길

— 日本에서 徹底討論한다/특집 “9.11” 더욱 무거운 물음’에서

‘9.11’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의 동시다발테러 발생 1주년을 맞으며 자살테러 행위 자체와 미국의 테러박멸전쟁을 중심으로, ‘테러 억제’의 길과 ‘전쟁의 효력’을 견해가 다른 두 사회학자가 다각적으로 토론한다. 전쟁이나, 증여(기프트)작전이나……테러 억제·박멸로 가는 길의 순서는.(J.F)

하시즈메 다이사부로요  
橋爪大三郎  
(東京工業대학 교수)

오오사와 마사지  
大澤眞幸  
(京大대학 조교수)

## 思想의 3幅 관계

### 對策 못내놓는 循環構造

大澤 사회학이며 사회사상을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2001년 9월 11일의 동시다발 테러가 부상(浮上)시킨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적극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들이 가진 사상적인 카드는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의 사회사상은, 3개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상호부정을 하는 관계가 있는 동시에, 빙빙 순환

하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첫째의 흐름은, 공동체의 전통이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착함(善)이나 올바름(正), 규범의 관념을 그대로 채용하며, 윤리의 기초로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커뮤니티리언(공동체주의자)이나 내셔널리스트의 사상이 이것입니다.

둘째로, 첫째의 흐름을 특수한 공동체에 내속(內屬)한 착함의 관념이라고 비판하며, 보편적인 정의(正義)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다만, 이 입장

은, 정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려고 하면, 또 다시 공동체의 특수한 착함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편적인 정의를 이끌어낼 형식적인 절차를 제시하려는데 주안(主眼)이 있어요. 대개 모더니스트(근대주의자)에게 많으며, 제일 확실한 것은 미국의 존 롤즈(正義論)의입니다. 또한 롤즈보다 추상도가 낮지만,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도, 어떤 기준을 채우는 토의(討議)에서 이끌어내면 보편적 정의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을, 커뮤니티케이션의 이론으로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흐름이 말하는 형식화한 정의도, 그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 묶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3의 흐름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럽의 전통에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 규범관념을 추상화한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스트(탈근대주의자)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 보편적인 정의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다양한 착함의 관념,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지지해요. 그들의 정치적·실천적인 표현은 멀티 컬처리즘(多文化주의)이 되며, 미국의 대학에서 굉장히 기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스트는 대체로 커뮤니티리언으로 회귀하기 쉬워요. 순환구조이지요. 제일 분명한 것은 미국의 리처드 로티로서, 그는 포스트모던한 상대주의자지만, ‘멀티 컬처리즘은 제2의 흐름인 관용이나 민주주의를 철저화했을 뿐이며, 나는 서유럽의 에스노센트

리스트(自文化중심주의자)다’라며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 3개의 사회사상은, 셋이 다 ‘9.11’에 대해, 전쟁 이외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지 못했어요. 제1의 흐름인 커뮤니티리언이나 내셔널리스트는, 단순히 전쟁을 긍정했어요. 제2의 모더니스트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큰 대미지를 받았습니니다. 그들도 전쟁을 지지했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테러리스트는 형식적 정의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일탈자였기 때문입니다. 제3의 포스트모더니스트는 가장 전쟁에 비판적이었지만,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하시즈메(橋爪)씨의 ‘그 앞의 일본국으로(その先の日本國へ)’(勁草書房)에서 인용을 한다면 ‘테러 상대주의’입니다.

하시즈메씨는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긍정하실 테구요, 나도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쟁만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해소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인간을 제압하더라도, 테러가 일어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녜요.

橋爪 오오사와(大澤)씨가 하신 사상적 정리는 상당히 훌륭해서 일본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군요. 다만 3개의 견해가 서로 견제하는 상태에서 운신이 안되는(すくみ)구조가 되어있다는 것과, 사상이 테러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다고 하는 것과는 독립된 문제인데,

大澤 물론 그렇습니다.

## 構造의 취약성

### 社會의 高度化가 犯罪를 誘發

橋爪 3개의 사상은, 자본주의라는 운동이 삼출(滲出)시키는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어요. 도대체가 셋이 다 자본주의라는 운동의 수반자기 때문에,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9.11’에도 음사건(음謀理敎의 지학칠 사린독 살포 살인사건)에도 은실효과 가스에도, 거의 효과적이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규범을 주고자 제안을 하는 사상이 이 3개밖에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경우에는 기존하는 사상 중 어느 것인가를 살피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형식적인 순환의 구조를 제시하며 “셋 다 안된다”고만 한다면, 사람들은 당혹해서 점점 더 행동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아요.

大澤 아녜요, 이 사상의 3쌍쪽(三幅對)의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가령 ‘탈(脫)담’ 문제는, 공동체의 합당한 규범을 통해서 해결할 있을 지도 몰라요. 그러나 ‘9.11’이나, 음사건에서는, 보통사람들도 3쌍쪽 사상에 대해서 식연치 않은 감각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橋爪 그 말은 옳아요. 한데 우선, 이 3개가 각각 충분히 과연 그렇다고 하며 인식을 하는 일이 중요하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갈등이 생겨요. 나는 ‘9.11’ 이후, 질서를 회복하는데서, 전쟁이 얼마나 의

미가 있는냐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제일 적을 것 같기 때문에, 밸런스를 다시 찾기 위해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왜 ‘9.11’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고도화가 근저(根底)에 있어요. 네트워크가 점점 더 거대하게, 상호의존이 복잡해지면, 거미집과 같아서 하나라도 줄이 끊어지면 전체가 폭삭하고 맙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범죄를 유발해요.

‘코지키(古事記)’에 ‘아마쓰쓰미(天つ罪: 農耕문제에 대한 罪)’ ‘쿠니쓰쓰미(國つ罪: 人間문제의 罪惡)’가 있어요. 고대부터 일러내려오는 ‘아마쓰쓰미’ 중에 ‘아제하나치(許放ち: 논둑 헐기)’라고 해서, 논둑을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묘한 점인데, 일부러 몰래 남의 논둑을 허무는 범인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사회의 규범을 따르기를 싫어한다. 규범을 침범하는 것으로써 자기주장을 하는 거예요. 논이 없으면 ‘아제하나치’도 없었을 텐데, 논과 같은 인공물(人工物)이 생기면, 아이들이 놀다가 허물어뜨려도 한 배미가 망가지고 말지요. 이것이 구조적 취약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호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생기면, 해커가 나와요.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생기면 돌진해버릴까 하고 생각해요. 상상력 속에서는 모두들

생각해요.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는, 그런 따위의 이미지들로 우글거리거든. 다만 실제로, 어떤 집단이 그런 헤이트 크라이(嫌惡범죄)과 같은 행동을 일으키려면,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이 굳고 단단한 이념체계가 필요하합니다.

‘9.11’은 복수범(復讐犯)으로, 치밀한 준비를 했어요.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근본규범을 침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거기에 이해나 타산을 넘어서는 신념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런 신념체계가, ‘우리는 옳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큰 문맥 속에서는 옳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국제 테러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구조적 취약성을 공격하는 인간은 범죄자니까요, 보통 같으면 형법으로 처벌해요. 경찰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재판을 거쳐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외에 있는 국제 테러리스트는 체포가 안돼요. 테러지원국이 있어,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이나 근거지를 제공하며, 테러를 충동합니다.

이에 대항하려면, 적어도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첩 게릴라코먼드(특수공격)부대를 들여보내 일당을 암살해버린다. 또 하나는 정규군을 동원해 전쟁이라는 형태로 대항조치를 강구한다. 이번은,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오사와씨가 말하는 모더니즘이나 내셔

널리즘이나, 요컨대 근대의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처리·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규군의 행동이니까요, 합법적으로, 국민은 감시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은, 국제법으로써도, 합리화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작전은, 아프가니스탄의 인민을 공격하는 것이 아녜요. 어디까지나 탈레반정권을 목표로 하며, 군사목표에 한정해서, 제복의 군인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국가들이나 동맹국이 반대를 하지 않도록, 지지를 얻어내는 절차를 밟았어요.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자위의 범위내의 행동인 것입니다.

## 戰爭이라는 對抗策

### 不可避했었나 意味는 있었나

大澤 틀림없이 미국의 논리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나, ‘9.11’은 도무지 국제법이 상정(想定)하던 사태가 아녜요.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상정하지 않던 사태를, 무리하게 억지로 종래의 해석에 틀어넣고자 한 면이 있습니다.

하시즈메씨의 말씀은 요컨대, 형법을 적용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을, 파감하게 국제관계까지 확대해보신 셈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모호한 관습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패권국의 행동원리가 정착되어있어요. 패권국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도서는, 국제법은 설득력이 있는 논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찰력의 국제적 연대에 의

2002-26

한 집단안전보장체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테러리스트를 위협하거나, 신중해지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패권국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형법의 적용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우리들과 같은 논리를 따른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폭 테러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는, 세큐어리티의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공중폭격도 전혀 무섭지도 겁나지도 않아요. 전쟁의 위협을 받고 범죄를 안하게 되는 것은, 저쪽에 이쪽과 같은 종류의 합리성이나 이해의 관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쪽에는, 하시즈메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로서 보면 엉터리 같아 보이지만, 그 나름으로 일관성을 가진 체계가 있어요. 그같은 사람들에게는, 형법은 무력합니다.

橋爪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불가피성을, 좀더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반세기 남짓 전, 일본은 미국에 전쟁을 걸었어요. 미국은 '9.11'에서 진주만을 연상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실례가 되는 얘기지요. 일본은 선전포고도 하고, 정규군이 군사목표에 대해서 오직 군사행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아주 비수해서, 하루밤 사이에 단결을 하고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는

전쟁의 이념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일전쟁은, 자위전쟁으로서의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이 중국을 병합하던 말든 미국과 관계없다고 하는 논의로 유력했으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도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세계를 생각하면, 암담해지는 바가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미국이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일본의 정권, 그리고 그것을 지탱한 이데올로기, 도전의 가능성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대체 무엇에 도전한 것이었는지는, 우리들의 무의식이었으므로 잘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철저히 배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본인으로서도 은혜였어요. 이렇게 해서, 대항적인 자위전쟁은 도의적으로 옳다는 원칙을 일본인은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무의식으로 억압되어, 헌법 9조가 되었어요.

미국은 대항적인 자위전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세계도 그것으로써 구제를 받았어요. 그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 몇개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걸프전쟁은, 제일 성공을 한 것인가. 또한 냉전에 대한 승리도 커다란 성공이었어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현재는 정규군에 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은 거의 없어졌으며, 대신에, 치안이 좋지 않은 제3세계를 배경으로 한, 비정규군에 의한 테

러공격이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은 인식한 것입니다. '9.11' 전예요. 그런 예상대로의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반격전쟁을 해서, 이 이상의 테러가 없도록 억지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미국측에서 본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다만, 이 억지가, 두고두고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 美國의 手法

#### 對日전쟁과 이번의 差異

大澤 전쟁이 단기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테러리스트가 예상하는 대로 일인 것입니다. 미국의 시점에서 이치에 맞는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저쪽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미국=악의 도식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려면, 테러리스트로 보아서 가장 배신이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2001년 2월호의 '논좌(論座:론자)'나 '문명의 내부적인 충돌'(NHK복스)에서도 썼습니다만, 대규모의 경제원조, 증여지요. 그것을 실행하면,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나 지지가 한꺼번에 없어져요. 미국이 박해하며, 악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의 기본전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테러리스트도 고립하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의 집합적인 멘탈리티의 표현이

되었을 때는 매우 무서워집니다.

전쟁이라는 선택지를 어딘가에 확보해 놓는다는 하시즈메씨의 논리는 알겠습니다만, 가령 하시즈메씨의 논리에 근거한다면 하더라도, 적어도 그 다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橋爪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일본의 점령과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미국은 우선 제1단계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일본의 전쟁능력을 없애놓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정부의 지도자도 포함하게 되는, 전쟁범죄인의 처벌을 받아들여주고, 일본을 보장점령(保障占領)했어요. 그 다음에 오사와의 기프트(斷頭)작전과 매우 비슷한 작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잉여농산물을 나누어 준다든지요. 더구나 전쟁이 3년 8개월이나 계속되며 일본연구가 계속된 것을 배경으로, 심리학이며 사회과학을 동원해서 미디어도 컨트롤했어요. 기프트와 심리작전으로 반미행동을 억제하고, 미국의 국익과 세계전략에 봉사하는 국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大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성공이겠지요. 다만 현실에서의 평가는 어려워요.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우리들은 전후 50년 이상이 지나도, 전쟁(테평양/大東亞전쟁)이라는 사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혹은 전쟁중과 전쟁전(戰前)간에 어떤 연속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합니다.

橋爪 나도 대체로 같은 평가를 합니

다. 하지만 그것은 굶어죽는다는지, 또 한번 전쟁을 일으켜 혼이 나게 된다는지 하는데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사치스런 고민이란 말이지요.

미국은 금방 전쟁을 하지만, 심리작전에 대해서는 아주 호러터분하며, 아무 것도 안하는 나라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에 관해서, 미국이 어케서 그렇게 나이브하며 아무 것도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상대였던 경우는,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거의 4년이나 싸웠으므로, 미국은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大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해결은, 헌팅던처럼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며, 이슬람 이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문명으로서, 일본도 이질적인 스텐젠(이방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때, 이슬람은 스텐젠이라도, 같은 기원(起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과 발생의 근접성 때문에, 도리어 이슬람이 유럽문명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타자(他者)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 贈與문제에 대해서

#### 基本的論理를 다시 세운다

橋爪 일신교(一神敎)의 대극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를 번역하는 것이

더 훨씬 곤란하고, 이슬람문명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사와의 기프트작전은, 아이디어로서는 재미가 있지만, 약간 테러리스트 중심의 발상이라고 할까. 미국에서는 그런 발상이 안나와요. '쓸데없는 자선(慈善)은 도리어 해악이 된다'고 크리스천은 생각해요.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여서, 상대측도 주체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원의 손길을 뺏치는 거예요.

좀 더 이 테러의 근본,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생각해야만 해요. 미국이 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세계에서 기피를 당하며, 이슬람교도의 증오의 표적이 되느냐. 그것은 미국이 강대하며, 하이테크이고, 세계의 중심이며, 문명의 상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만한 풍요로움과 하이테크와, 미국적 생활양식이 세계적인 크기로 확대될 수 있는가. 세계의 5%의 인간이 에너지의 40%를 사용하는 셈이니까, 지구환경의 제약도 있어, 세계가 다 미국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존재는 세계의 다른 부분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착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컨대 방해꾼인 것입니다.

미국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므로, 또한 세계질서는 미국이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기묘한 구조가, 앞으로 수십년은 계속될 거예요. 이번에는, 비미국적인 것

이 테러로 미국의 중추를 공격했고, 미국이 무력을 발동해 국제질서를 유지한 단적인 예입니다만, 구조자체는 온존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 테러리스트 국가에 기프트를 하는 것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예요. 오사와의 논리를 부연한다면, 테러리스트를 근절하는 길은, 미국이 자기해체적으로, 스스로의 문명의 구조를 탈구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예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바에 없어요.

大澤 마지막의 결론은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자체를 탈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프트의 문제는, 바로 그 점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시즈메씨가 말씀하신 포인트가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기프트작전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의감에 반하므로,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거의 공통의 합의점이 없는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해요. 이같은 상대와 관계를 가지려면, 상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해야만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존재는 세계의 다른 부분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착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컨대 방해꾼인 것입니다.

미국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므로, 또한 세계질서는 미국이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기묘한 구조가, 앞으로 수십년은 계속될 거예요. 이번에는, 비미국적인 것

기본적인 원리는, 교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탈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교환의 체제인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궁극적으로는 교환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기원이기도 한 기독교에까지 거슬러올라가서 말하면, 그 위화(違和)적인 부분이란, 원죄의 관념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쁜 것(惡)을 하기 전에 나쁘다(惡)는 것이며, 처음부터 부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하면서 공정——교환에서의 공정——의 감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원초적인 부채(원죄)의 관념과는 역방향으로 교환의 논리를 타고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역방향이란, 근원적인 증여의 논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개의 원조활동보다도, 어딘가에 증여를 근본적으로 편입시킨 새로운 관계의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환의 논리에 기축을 두는 미국적인 자본주의를 탈구축하는 것이 돼요. 아무런 일도 없을 때에 이런 주장을 한대도, 거의 공리공론으로서 물리쳐져요. 그러나 '9.11' 테러와 같은 충격과 위기의식이 있을 때면 얼마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市場經濟의 실패

#### 減縮되는 普遍性에 대한 信賴

橋爪 기프트에 따라 자신이 변하고 상

대방도 변한다는 사고방식은, 대인관계나 고작 인류학이 다루는 공동체간의 역학에는 응용되지만, 그것을 21세기의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조잡한 일이 아닌가. 더욱,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기프트를 끌어들이는데도, 우선 시장에서 이익을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뿌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기프트를 실시하려면, 교환이 주도인 시장을 점점 더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기프트를 보낸다는 작전이, 폭력을 유도할 우려도 있어요. 기프트가 잘 사용되어 효과를 올리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이 진짜로 논의할 점은 좀 더 달리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오오사와씨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 산업문명입니다. 그것을 따라 세계의 어느 나라나 이익을 얻는다는 감각이 있어요. 국제적인 시장경제가 축소되면, 실제문제로, 누구나가 불행하다. 그것과 절연을 한 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체와 파탄을 가져왔고, 시장경제로 복귀했다는 교훈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경제의 내부에서, 이것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탈구축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경제에서는, 틀림없이 교환은 쌍방의 상태를 개선시키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초기 부존량'이라고 말하는, 소

유권을 설정하는 단계의 불합리를, 시장경제는 해소하지 못해요. 그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책임지는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일본은 거기에 어떻게 관계를 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담 중여 이야기를 하기 전에.

大澤 국제관계를 작은 인간관계 레벨에서 성립되는 논리와 관계에서 생각해도 되느냐 아니냐는, 나도 처음 의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이후, 국제관계를 국민국가간의 역학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진 다음에, 상황이 일변해, 커다란 국제관계에 인간관계와 같은 예정이나 증오의 논리가 단락(短絡)적으로 직결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여가 폭력을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에 대해서는, 폭력은 행사자로서도 대단한 회생을 강요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해요. 저 역시 죽을지도 몰라요. 기프트작전을 쓰면, 그만한 회생을 치르며 폭력을 발동할 이유가 없어져요. 더구나, 폭력을 가했더니 소득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교환의 논리란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교환의 논리를 넘어서었어요. 자폭이라는 대가가 불가능한 회생을 치렀으니까요.

시장의 이야기는, 나도 시장경제를 부정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논리일 것입니다. 다만 초기 부존량에서 오는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교환과는 다른,

중여의 논리가 효과적입니다.

시장경제라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궁극적인 보장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미국으로서 상징적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물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담담해오던 보편성에 대한 신뢰가 감축되었어요. 하시즈메씨는 요즘 저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만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집합성을 담보하는 공통의 이념·가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자주화제가 되지만, 최근의 미국의 행동의 특징은 유니라텔리즘(단독행동주의)입니다. '쿄오도의정서(京都議定書)'도 승인하려 하지 않아요. 이것은 미국의 지도자가 조금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념의 영역에 속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보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의 이기적인 행동 자체가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쿄오도의정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시장경제와 관계가 되는 것은, 월드컴이나 엔론의 의혹입니다. 그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물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분식결산은, 개인적인 악행처럼 들리지만, 더욱 큰 의미가 있어요. 금본위제하에서는, 금이 바로 시장에 대한 신뢰의 궁극적인 담보가 되었어요. 현재, 금을 대신해, 우리들의 신뢰의 실마리가 되는 준거는, 기업의 회계밖에 없어요. 기업의 회계를 보면서, 우리들은 투자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는 것이니

까요. 회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금본위제의 종언에 필적하는, 시장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시즈메씨가 말씀하시는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언뜻 매우 좋게 생각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 세큐어리티

外部가 아니라 内部에서 테러 橋爪 오오사와씨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간단합니다. 세계의 크기로 확대된 시장이 요구하는 모델, 질서와 개별적 미국 국가의 특수이해가 모순된다는 것일 뿐인 문제라네요. 그렇다면, 시장에 참가하는 다수의 국가들을 대표하는 시장적 합리성이, 미국의 특수성을 이겨내고, 그것을 미국이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본구조를 만들어가면 돼요. 당연히, 미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만, 긴 추세로 본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大澤 문제는 어떤 국가가 매우 셀피슈(이기적)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공통으로 나누어 가진 물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보편적인 신뢰가 될 만한 뉴트럴(공평)한 포지션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확대된다는 문제입니다. '9.11'은,

우리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같은 의문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시장경제 자체도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橋爪 시장이 교환 메커니즘으로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동이 예측될 수 있음을 담보로 할 필요가 있어요. 교환은 자유고, 시장경제도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것이지만, 상대의 행동이 예측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타자(他者)는, 그 자유를 승인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틀(기본구조) 안에 넣어요. 틀을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인간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전보장(세큐어리티)의 개념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시장시스템의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테러의 가능성을 높여간다. 테러를 공동으로 배제하는 공동이익(共同利害)을, 시장 참가자들이 분담해 가지게 된다. 미국은 그 주재자가 된다. 다른 주권국가들은 공동행동자가 된다. 그런 형태로 재편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년 가량은 그러저러 돼요. 하지만 그 다음은, 비유럽·미국적인 세계의 경제력이, 세계의 절반을 넘어버릴 것이므로, 시스템의 재정의가 요구될 거예요.

大澤 시스템의 외부에 테러리스트나 파격적인 원리주의자가 있는 것이라면 아직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시스템 내부의 혼란이나 모순을 표현

하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맨 처음 실감으로써 생각한 것은, 움진리교사건 때입니다. 나는 움진리교의 중심적인 세대와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나는 내가 '움'적인 현상의 일부라고 통감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움'하고 '비(非)움'으로 나눈다면, 나는 '비움'입니다만, '움'은 나의 안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을 과장해서 외부화했을 뿐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꼈어요.

세큐어리티의 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국제 테러리스트는 사실은 국내에 잔뜩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공감해버리는 것 같은 시민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테러리스트라고 싸놓은 것도 아녜요. 세큐어리티는 본래, 민주주의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의 침범을 막는 성밖의 해자를 파놓는 작전입니다만, 만일에 배제해야 할 테러리스트가, 민주주의를 보호유지하는 시스템의 내재적인 곤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세큐어리티는 한없이 더 강화해야만 하게 돼요. 마침내, 통상의 민주주의와 비상사태적인 대응의 구획선이 분명해지지 않는 데까지 가게되는 것이 아닌가.

### 말이 없는 테러

#### 이쪽의 反感 저쪽의 共感

橋爪 결국, 세큐어리티는, 자기검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을 모니터한다. 그것이 어디까지가 공공적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유와 프라이버

시의 침해인가. 만전의 세큐어리티를 확보하고자 하면, 프라이버시가 없어져요. 프라이버시가 없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던 말인가. 그래도 모니터의 기술이 없었던 시대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밸런스가, 모니터의 기술이 발전된 사회에서의 밸런스와 다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쪽과 균형점을 발견하도록 논의가 추진되어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큐어리티를 위협하는 인간은, 시스템의 파괴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파괴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플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랜이 있으면 그것은 파괴가 아니고 개혁이든지 혁명이 돼요. 충분히 현실적인 플랜은, 언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화하면 사상이 되니까,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의를 거쳐 살아남는다면, 이것은 테러리스트가 아녜요. 그런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파괴활동을 하며, 파괴한 다음에 무엇을 건설하느냐를 말하지 않는 것을 '테러리스트'라고 정의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컴퓨터의 버그(프로그램의 오류부분, 벌레)와 같은 것으로서, 제로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스템은 살아남는 것이 아닐까.

大澤 '9.11'의 테러리스트는 무슨 목적으로 누가 했느냐. '범행성명'도 없는 가 하면 '목적'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 없어요. 그러나 공감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쪽 세계에

있으므로, 공감의 범위를 좁게 느낀다면, 이게 이슬람권으로 가면, 공감에 가까운 것을 가진 사람은 훨씬 많습디다. 그러니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아도 공감을 일으키는 수는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논리입니다. '폭력수단을 쓰지 말고 말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구조적인 원인으로 말로 하는 표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머리가 나쁘다든지, 언어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아녜요. 스피치이라는 인도계의 미국인 학자가 유명하게 만든 '서벌턴(억압당하는 사람)'이 하나의 예입니다. 인도에는 과부가 남편의 뒤를 따라 순사(殉死)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인은, 야만적인 제도라고 해서 금지시켰어요. 그런 '유럽적인 인권사상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내셔널리스트도 있어요. '영국인이 야만적인 현자인 사나이들로부터 과부를 구했다'는 언명도, '과부는 정말로 순사를 바랐다'는 언명도,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잘 맞지 않아요. 자신이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언설의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폭력, 테러에 의한 표현 밖에는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도 포함해서 민주주의를 말할 때에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돼요.

橋爪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말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는 말을 해보

